

광주FC·전남드래곤즈, 7월 승리 사냥 나선다

광주, 내일 K리그2 김포 원정 전남, 3일 서울이랜드와 대결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새 출발선에서 승리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2일 오후 8시 솔터체육공원 축구장으로 김포FC와 하나원큐 K리그2 24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전남은 3일 일요일 오후 8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와 맞대결을 갖는다. 새로 시작하는 두 팀이다. 광주는 지난 23라운드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1-4패를 기록하면서 1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마감했다. 홈 11연승 도전도 무산되면서 광주는 새 출발선에 서게 됐다. 광주입장에서 앞선 패배는 아쉽지만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3개월 넘게 '지치 않는' 싸움을 하면서 쌓인 피로도와 부담감을 털어낸 광주는 우승 질주를 위해 다시 속도를 낸다. 광주는 앞선 패배에도 13개의 슈팅을 날리며 이중 6개를 유효슈팅으로 만들었다. 또 '원톱'으로 파격 기용됐던 박한빈이 최전방으로 나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광주의 전술 옵션도 늘었다.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넣은 김중우, 8골로 팀 내

최다 득점 중인 헤이스, 후반 교체 투입으로 체력을 아낀 엄지성, 장신 공격수 허을 등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골 사냥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만나는 김포는 '신생팀'이지만 끈끈한 조직력으로 리그 첫째 8위에 자리하고 있다. 손석용을 비롯해 김종석, 윤민호 등 한 방을 갖춘 공격수들도 주의해야 한다. 앞선 경기에서 패배는 했지만 광주는 2위 대전에 승점 8점 차 앞선 1위다. 광주가 승리 행진을 재개하면서 우승 질주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은 23라운드 휴식팀이 돼 재정비 시간을 벌었다.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전경준 감독을 대신해 시즌 중반 지휘봉을 잡은 이장관 감독에게는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전남 선수단은 확 달라진 분위기 속 이장관 감독의 프로 첫 승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장관 감독은 프로에서 세 경기를 지휘했다. 막강 외국인 공격진을 보유한 경남FC에 이어 1위 광주 그리고 패기의 신생팀 김포와 맞대결을 벌였다. 세 경기 모두 선제골은 전남이 장식했다. 아쉽게 승리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세 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승점 3점을 챙겼다. 무엇보다 '용광로 축구'를 선보이면서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

록했다. 휴식 라운드를 보내면서 손발을 맞춘 전남은 이번에는 승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주장 김현욱은 "아쉽게 승점 3점을 놓친 경기가 많은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신 이장관 감독에게 프로 데뷔 첫 승을 선물하고 싶다"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최근 서울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 전남은 2승 3무로 우위를 점했다. 통산 전적은 3승 8무 2패. 전남이 달라진 화력으로 기다렸던 승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이빙 국가대표 김수지(왼쪽)와 광주시청 이재경이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두나 아레나에서 개최된 2022 국제수영연맹(FINA) 혼성 싱크로나이즈 다이빙 결승전에서 다이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이재경-김수지, 혼성 싱크로 3m 스프링보드 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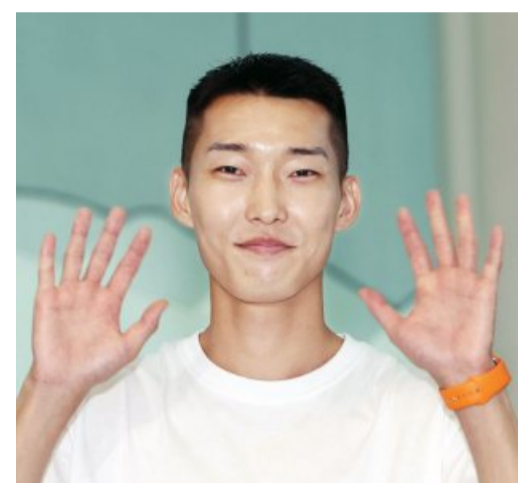
FINA 세계선수권대회 김수지, 1m 스프링보드 18위

3년 전 우리나라 다이빙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상대에 섰던 김수지(울산시청)가 이번에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김수지는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5차 시기 합계 234.95점을 받고 전체 참가 선수 46명 중 18위에 자리했다. 김수지는 상위 12명이 겨루는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1m 스프링보드는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김수지가 2019년 우리나라 광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종목이다. 한국 선수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은 김수지가 최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대표 14년 차인 베테랑 조은비(인천시청)도 출전했으나 187.75점으로 39위에 처했다. 김수지는 이재경(광주시청)과 짝을 이룬 혼성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서는 5차 시기 합계 275.82점을 받아 전체 13개 조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이재경은 조은비와 함께 혼성 팀 경기도 뛰 어 6차 시기 합계 332.85점을 획득하고 13개 조

중 7위에 올랐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 때 처음 세계선수권대회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혼성 팀 경기는 한 팀을 꾸린 남녀 선수가 동시에 다이빙하는 혼성 싱크로 경기와 달리 남녀 선수가 각각 세 번의 다이빙을 수행한 점수를 합쳐 순위를 가린다. 총 6차례의 다이빙 중 세 번은 3m 스프링보드, 세 번은 10m 플랫폼에서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다이빙 종목에 애초 다섯 명이 출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판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이 허리 부상 악화로, 기대주 권하림(광주시체육회)은 팔꿈치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돼 김수지, 조은

비, 이재경만 참가하고 있다. 한편, 부다페스트 루파호수에서 열린 대회 오픈 워터스위밍 남자 10km 경기에서는 박재훈(서귀포시청)과 최용진(안양시청)이 참가 선수 62명 중 각각 36위와 41위로 경기를 마쳤다. 여자 10km에 나선 이해림(경북도청)은 2시간 13분08초6을 기록, 61명 중에서 43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0km에서 역시 한국 선수 역대 최고 성적(종전 53위)이다. 같이 출발한 박정주(안양시청)는 첫 바퀴에서 몸싸움 중 수경이 망가지고 수모가 벗겨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레이스를 이어가 2시간18분11초9로 48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열리는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높이뛰기 우승력이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금빛 도약할게요”

우상혁 세계육상선수권 출전

불모지 한국 육상에서 탄생한 '세계 최정상급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전설' 하비에르 소토마요르(55·쿠바)만이 달성한 '남자 높이뛰기 같은 해 실내·실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석권'에 도전한다.

지난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 우승한 우상혁은 오는 7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2022 세계(실외)육상선수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우상혁은 30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소토마요르는 높이뛰기의 전설적인 선수다. 소토마요르와 같이 언급되는 건 기분 좋은 일"이라며 "세계실내선수권에서 우승했으니, 유진에서도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기록을 갈망한다. 역사를 쓰고 싶고, 이름을 남기고 싶다. 죽을 만큼 노력해야 최초 기록에 닿을 수 있다"며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열심히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경기에서 보여주려고 한다.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할 기회가 왔다. 꼭, 좋은 성적 내고 돌아오겠다"고 금빛 도약을 다짐하기도 했다. 우상혁이 유진에서도 가장 높이 날아오르면, 세계육상에서도 드문 진기록이 탄생한다.

남자 높이뛰기에서 같은 해에 실내와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동시에 차지한 선수는 소토마요르 뿐이다.

2m45의 세계기록 보유자이자 '역대 최고 점퍼'로 불리는 소토마요르는 1993년 3월 토론토 세계실내선수권에서 2m41로 우승하더니, 그해 8월 슈투트가르트 세계(실외)선수권에서도 2m40으로 정상에 올랐다.

실내와 실외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서 모두 우승을 경험한 선수도 극소수다.

파트리크 셰비리(스웨덴)가 1985년 파리(실내·2m32)와 1987년 로마(실외·2m38)에서 처음으로 이 기록을 달성했다.

찰스 오스틴(미국)은 1991년 도쿄에서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2m38)을 차지한 뒤, 1997년 파리 실내대회에서 정상(2m35)에 올라 두 번째로 '실내와 실외 동반 세계 챔피언'의 타이틀을 얻었다.

'전설' 소토마요르는 1993년 토론토(2m41)·1995년 바르셀로나(2m38)·1999년 마에바시(2m36) 등 실내 세계선수권 우승 3차례, 1993년 슈투트가르트(2m40)와 1997년 아테네(2m37)에서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 2차례에 성공했다.

현역 선수 중에는 바심이 유일하게 실내와 실외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다. 바심은 2014년 소포트(2m38)에서 실내 우승, 2017년 런던(2m35)과 2019년 도하(2m37)에서 실외의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에 SNS 인증차별 맨유팬, 경기장 출입금지

영국 사법당국 관련 규정 개정

앞으로 손흥민(30·토트넘)에게 SNS에서 인증차별적 발언을 한 영국 축구 팬은 경기장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30일(한국시간) "영국 검찰이 축

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증오 범죄를 저지른 팬들에게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인증차별 등 혐오와 적대감이 포함된 학대 행위에 대해 법원에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가해 팬이 현실 공간에서 피해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만 법원이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적용 범위가 '인터넷 공간'으로 넓어진 것이다. 검찰은 "축구에 증오가 설 자리는 없다"면서 "증오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SNS에서 손흥민에 대해 인증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최근 '사과 편지 쓰기' 처분

만 받고 끝난 12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팬들도 앞으로는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 출입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 4월 맨유와 경기에서 반칙을 당했는데, 이 때문에 맨유의 특징이 취소돼 맨유 팬들이 SNS에서 손흥민을 비난한 바 있다. 이중 인증차별적 발언을 한 12명에 대해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 수사를 벌였고, 이들을 정식으로 기소하는 대신 사과 편지를 쓰도록 하는 '공동체 해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